고유정 의붓아들 살인사건 수사 본격화

제주지검 전담팀 꾸려 내달 4일까지 마무리
지법, 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해 재판 진행

고유정(36)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청주지검으로부터 지난 21일 고씨 의붓아들(6)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사 2명에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리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아들 A(6)군의 몸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현 남편 B(37)씨의 잠버릇 때문에 의붓아들이 숨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A군이 10분 이상 눌린 압박으로 인해 질식해 숨졌다는 부검의 소견과 고씨가 인터넷에서 질식사를 검색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현 남편 B씨의 모발에서 미량의 수면유도물질이 검출된 점 등은 고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달리 시신도 있고 부검 결과도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리는 11월 4일 전까지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고씨를 다음달 초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 법원은 이 사건과 전 남편 살해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씨는 전 남편 살해 사건의 7차 공판이 열리는 내달 중순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법정에 설 전망이다.

한편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10분쯤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집에는 고유정과 남편 B씨 둘 뿐이었고, 현장 감식 결과 외부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기자

■ 경찰, 명상수련원 50대 변사사건 마무리

"장기간 시신 방치 종교적 주술행위 없어"

심근경색 의한 사망 추정
원장 등 6명 검찰로 송치

속보=경찰이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시신을 장기 방치한 혐의 등으로 명상원 원장과 대표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한 수련원 원장 홍모(58)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체은닉 방조 혐의를 받는 수련원 대표 B(52)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홍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20분 사이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 3층에서 A(57)씨가 의식을 잃고 숨질 때까지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홍씨는 A씨가 숨졌음에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장기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이 명상수련원에 입소한 A씨는 9월 1일부터 가족과의 연락이 끊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가족들이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련원 3층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반듯하게 누워 있는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또 경찰은 수련원에서 에탄올과 한방침 등을 압수했다.

부검 결과 A씨가 타살됐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A씨가 숨진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졌다"고 상식 밖의 진술로 일관하다 나중에야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씨는 "A씨의 입술에 설탕물을 묻힌 거즈를 올려놓고 에탄올을 뿌려 몸을 씻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홍씨의 진술과 한방침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종교적 주술행위와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이런 의심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종교·주술적 조형물이 수련원 내에 없고 다른 회원들도 그동안 수련원에서 종교적 행위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한방침도 의료 목적이 아닌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기자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 찬반 협의 테이블 마련"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비자림로 공사현장을 찾은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조만간 찬반 단체 및 관계자 등과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청장은 24일 오전 9시40분쯤부터 11시까지 1시간여 동안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비자림로를 지키려는 시민, 제주도 관계자 등과 함께 비자림로 공사 2·3구간을 걸었다.

이날 김 청장의 방문은 지난 21일 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비자림을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마주친 자리에서 제주도에 내려가 비자림로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약속하며 이뤄졌다.

김 청장은 비자림로를 둘러본 후 "조만간 찬반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모임이 환경청 입구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들도 비자림로 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시민모임과 광주·전남 26개 환경단체 등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규탄한다"며 "시민 참여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갓 잡은 고등어 선별 24일 한림수협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지난 밤 제주 근해에서 잡은 싱싱한 고등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뺑소니 사고' 밤 10~12시 가장 많아

2016~2018년 현황 분석
275건 발생해 8명 숨져
자정~새벽 2시 치사율 ⬆

제주지역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3810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해 408명이 숨지고, 3만4806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기간 제주지역에서는 275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8명이 숨졌다.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뺑소니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6시~8시(34건) ▷오전 0시~오전 2시(28건) ▷오후 4시~오후 6시(27건) ▷오후 8시~오후 10시(24건) 등의 순이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전 0시~오전 2시다. 이 시간대에 3명이 숨져 전체 뺑소니 사망사고의 37.5%를 차지했다.

오전 2시~오전 4시와 오후 6시~오후 8시에 각각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뺑소니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CCTV 설치를 확대해 뺑소니 사고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2공항 도민공론화 해야"
반대단체 단식농성 돌입

제2공항 반대단체가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도민들의 반대와 제주도의회, 국회, 환경부의 의견도 무시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에 세종정부청사 앞에서는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제주도민 노민규씨가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고, 내달 1일에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3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결의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도민에 대한 책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故 이민호군 실습업체 사업주 엄히 처벌하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사망사고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된 24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이 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업의 각성을 이끌어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면죄부인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비판한뒤 "2심 재판부는 엄중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0년 봄 출하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탐나는봉 · 황금향 미니향 · 아마나스 제라몬(레몬)
조 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오하라베니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